

패션업계, '올림픽 마케팅' 총력

'기능성은 물론 안전까지'... 노스페이스, 국가대표 단복 지원·전시

지난 6일 리우올림픽이 개막된 가운데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패션업계도 국가대표팀, 인기 종목 및 인기 선수 등을 활용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및 대한체육회 공식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 '노스페이스'는 오는 22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팀코리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노스페이스는 '팀코리아 팝업스토어'에서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에 지원한 단복들을 전시한다.

최고 영광의 순간인 시상식 위에서 착용할 '시상용 단복', 현지 선수촌에서 이용할 '트레이닝 단복(일상복 포함) 정장용 제외(일체)' 및 '선수단 장비(신발, 모자, 백팩 및 여행가방 등)' 등이다.

팀코리아 기념 티셔츠 판매 및 인증 사진 이벤트도 진행해 소비자들의 발

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노스페이스는 오는 20일까지 공식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팀내라 팀코리아 응원이벤트'도 실시한다.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팀코리아 공식 단복 등 푸진한 경품을 증정한다. 현재까지 3500 건이 넘는 응원메시지가 접수됐을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노스페이스는 리우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공식 단복 제작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 리우올림픽 노스페이스 단복의 핵심은 '기능'과 '안전'이다. 브라질의 다양한 기후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감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하계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긴 팔과 긴바지의 단복을 제작하고 원단에 모기 등 해충이 기피하는 약품으로

방충 가공 처리를 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진전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리우올림픽 단복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단복에 스마트폰을 대면 손쉽게 원하는 음악을 듣고, 국민들의 응원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은 농구, '축구', '육상' 등 인기 스포츠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이키는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을 활용한 USA 대표팀 컬렉션 을 선보였으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후원하면서 '한계는 없다' 캠페인을 진행해 각종 패션화보 제작 및 축구화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푸마는 우사인 볼트의 트레이닝화로 알려진 러닝화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하는 우사인 볼트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시스



얼음까지 하는 생선들. 낮 최고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 수산코너에서 한 직원이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있다.

고가 경품경쟁 '후끈'

홈쇼핑업계, 경기불황에

홈쇼핑업계가 저성장과 경기불황에 맞서기 위해 고가의 경품 마케팅에 돌입했다. '순금'과 '벤츠 E클래스', 고가의 여행권 등이 경품으로 내걸렸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리우올림픽을 맞아 '순금',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의 '금'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별도의 조건 없이 모바일 앱으로 응모만 해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모바일 앱으로 응모한 고객 중 추

첨을 통해 '순금 37.5g 3명', '현금 50만원 10명', '불금 아이템인 CR7 드로즈 1종 200명 등 1500만원 상당의 금 콘셉트 경품을 263명에게 제공한다. 현대홈쇼핑 고객이면 누구나 현대홈쇼핑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6일부터 22일까지 매일 한 차례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9월 1일 발표된다.

CS홈쇼핑 역시 리우올림픽 기간 중 TV홈쇼핑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1억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11.25g)를 증정하는 '아이팅 코리아!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총 120명을 추첨한다. /뉴시스

산은, 대우건설사장 임명에 특정후보 밀어주기

사장추진위 비밀회동 확인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차기 사장에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깜깜이 회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장추진위원회(사추위)는 지난 3일 향후 사장인임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날 20일 사장후보를 최종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사추위 공식모임을 가진 뒤 보름만이다. 이번 모임에서 사추위는 향후 사장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주 안에 어떻게든 차기 사장 후보를 확정짓자는 말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추위는 크고작은 모임 및 향후 일정 등을 대우건설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회

동은 대우에조차 알려지지 않고 사추위 위원들끼리만 몰래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회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추위는 지난 20일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조응수 전 대우건설 부사장 중 최종 한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기로 했지만 당일 돌연 후보선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시 노조에서 낙한 인사와 정차면개입 의혹을 제기한데다, 불투명하게 사장 선임 과정이 계속되자 '특정후보 밀어주기' 아니냐며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사추위가 특정후보를 선임하는데 부담을 느껴 선임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모임은 갑작스런 사장선임 연기 이후 어떤 일정이나 절차 등 계획도 발표되지 않다가 보름만에 모래 이륙한 회담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해외식품 제조업소 등록 의무화

앞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 신고 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을 생산 현지부터 관리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본격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 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다.

현재 축산물 해외직접장업을 포함한 모두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가별로 중국이 6488개소로 가장 많고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프랑스(1018), 베트남(1120), 태국(699) 등의 순이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 (<http://impfood.mfds.go.kr>)을 이용하면 된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등의 여부 등이다.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해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600개소,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273개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563개소가 영업등록 돼 있다. /뉴시스

11번가 상반기 악기 판매율 35% ↑

악기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월 11번가에 따르면 악기 카테고리 판매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악기 판매율은 최근 3년 동안 거래액이 평균 20%씩 증가했다.

매장을 방문해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고 소리를 들던 과거 구매 방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악기 브랜드 또는 전문가가 올리는 콘텐츠를 통해 미리 청음하고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11번가는 분석했다. 특히 전체 악기 판매량 중 43%가 모바일에서 판매됐다. 지난 1년 간 1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악기는 디지털 피아노, 건반악기, 기타 관악기, 현악기 카테고리 순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리우 올림픽 START 온라인몰 '고객을 잡아라'

마켓·옥션 등 이벤트 쿠폰·치킨반값 혜택 제공

지구촌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지난 6일 열린 가운데 국내 온라인몰들도 일제히 관련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오는 22일까지 썬바축제 이벤트를 열고 쿠폰, 치킨반값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G마켓은 시차를 고려해 매일 밤 8시~12시 사이에 받을 수 있는 20% 심야쿠폰을 제공한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 여부에 따라 최대 5만명에겐 맥시카나, 포레오에 치킨 50% 할인쿠폰도 선착순 배포한다. 또 올림픽 공식 후원사 P&G와 합

계 대한민국이 오전 10시 이후 금메달을 획득하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선착순 2,000명에게 P&G 생활용품 2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대 5000원까지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전자와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삼성전자 브랜드관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중복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다양한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 '삼성 48인치 LED TV'를 69만9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옥션도 오는 22일까지 100% 당첨되는 '옥션스타adium' 응원 이벤

트를 진행한다.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로 참여 고객에게는 추천상품 중 1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G9는 8일 오전 11시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대상으로 G9 모델 박보검의 '응원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박보검 이모티콘은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각종 응원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마케팅실 김소정 전무는 "공식 후원사와의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뚜레쥬르 리우올림픽 응원위해 '국가대표 빵' 지정 응모이벤트

뚜레쥬르가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베스트 빵 7종을 '국가대표 빵'으로 지정,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평소 고객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 제품들 중 대한민국의 건

승을 기원하기 위해 양궁, 체조, 펜싱 등 경기 종목이 연상되는 모양의 빵 7종을 '국가대표 빵'으로 지정했다.

동그랗게 말린 모양이 양궁 과녁을 연상 시키는 '몽블랑 파스퇴리', 홀라 후프를 닮은 크리치즈 월렛 브레드

와 길쭉한 펜싱 검을 형상화한 듯한 '츄러스' 등이다.

'국가대표 빵' 7종을 구매하면 영수증 하단에 위치한 응모번호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위 기간 중 해당 제품 구매 영수증 하단에 표기된 응모번호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